

전통시장 활성화 팔 걷었다

임실군 골목형시장 육성 국비 등 4억8000만원 투입 내년 2월까지 사업 추진

임실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임실시장이 전국적인 문화관광형 명품시장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고 있다. 군은 14일 임실시장 상인회교육장에서 시장상인회와 사업선정업체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임실시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명품형 전통시장의 면모를 차츰 갖춰 나갈 계획이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임실치즈를 특화하고, 35사단 군부대 인근시장으

로서의 여건을 활용, 차별화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2억4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군은 내년 2월까지 임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디자인과 ICT융합 인프라 구축, 특화상품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실시장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119 안전체험관 등 관광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35사단과 일진제강 등이 가까이 있어 면회객이나 방문객의 시장 유입이 용이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

군은 이러한 주변 환경 여건을 최대한 살리고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성공리에 추진, 관광객의 전통시장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명품시장 조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다기능주차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주차공간의 대폭 확대와 함께 문화공연과 지역특산물 상설판매장이 공존하는 다기능 전통시장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기용 임실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실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심민 군수는 "이번 임실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우리 임실시장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전국 명품시장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일하고 싶어요”... 채용박람회 구직자 붐물

남원시, 700여명 몰려 '열기' 18개 기업체 참여 현장면접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앞장

남원시와 고용노동부(남원고용센터)가 14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17 남원시 채용박람회'에 700여명의 구직자가 몰려 취업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관내 (주)영우농동 식품 외 18개 기업체에서 참여한 가운데 제조·의류·식품·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200여명의 모집계획으로 구직자들을 대상 심도 있는 현장 면접이 이루어 졌다.

이날 컨설팅관에서는 전문인적성검

사, 이력서 사진촬영, 이미지 메이킹 등 면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취업상담지원과 소상공인 창업상담, 부사관 지원 희망자를 위한 병무상담, 금연클리닉, 체력측정, 건강 상담코너 등 구직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남원지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채용 행사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취업에 대한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특히 관내 특성화고인 남원용성고와 남원제일고가 참여한 가운데 바리스타, 네일아트, 압화, 드론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더불어 773부대 상근에 비역 전역예정자들이 지역 기업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고향에서의 취

업활동으로 청년취업해소 및 인구유출 예방을 위해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박람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위해 채용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상시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좋은 일자리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남원 실정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중장년 취업 지원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관광 택시홍보대사 양성 모범운전자 30명 교육 실시

순창군에서 택시를 타면 초특급 관광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500만 관광객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순창군이 다양한 관광정책에 이어 택시 관광 홍보시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순창에 관광버스타나 개별 관광안내를 받았던 관광객들이 이제는 택시를 타고도 순창의 다양한 관광지를 관람하고 여기에 택시기사의 친절 한 관광안내까지 받을 수 있는 것. 이와 관련 군은 지난 13일 순창 문

화의 집 회의실에서 개인택시 모범운전자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순창관광 택시홍보대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택시기사가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관광지와 문화시설을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순창관광 택시홍보대사는 택시 기사들이 지역의 관광지와 문화시설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게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관광객들에게 재미있게 설명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순창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관광 편의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날 교육에 순창개인택시 모범운전자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교육

에 열정을 보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교육은 군정 주요현황과 주요관광자원 소개를 시작으로 현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례 설명과 다양한 자료 활용 등으로 유익한 시간이 됐다.

순창군은 이번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안내책자와 관광지도를 배포해 기사들이 순창관광 택시홍보대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했다.

군은 앞으로도 택시홍보대사 뿐 아니라 블러그 기자단 등 지역민을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은 최근 국내 주요 여행사의 여행상품 전문가들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임실군, 가을관광객 사로잡는다

여행사 상품기획가 초청 이틀간 팸투어 진행 대표관광지·명소 탐방

"올 가을엔 재미와 낭만이 넘치는 곳, 임실로 놀러오세요"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2017 임실N치즈축제'를 앞두고, 임실군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관광객 몰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실군은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국내 주요 여행사의 여행상품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임실N치즈축제와 임실군 대표관광지 및 주요명소를 알리는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팸투어는 2017 전라북도 전

답여행사와 국내 주요 여행사의 상품기획 전문가 30명이 참가해 임실군의 주요명소를 돌아보고, 여행상품으로의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임실N치즈축제 준비가 한창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 마을 일대를 둘러보고, 다양한 치즈체험 프로그램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심민 군수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 임실N치즈축제와 임실군의 주요 관광상품을 널리 알려 역대 최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해 관광여행상품으로 연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이용자 증가

올해 누적 관광객 8만명 예상 각종 대회 유치 등 지역 활력

축구경기장, 풋살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의 운동 시설을 갖춘 임실군 생활체육공원이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2006년 임실읍 이도리에 13만㎡ 규모로 조성된 생활체육공원은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분수대, 휴게시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완비돼 있다.

농촌 소도시에서 보기 힘든 6천석 규모의 인조잔디 경기장을 비롯해 8면의 테니스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갖춰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로 친목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대회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활력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체온유



지실 등과 25m 레인 5개 규모의 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는 남다른 인기를 얻고 있다.

일반 수영장과 다른 깨끗한 수질관리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특강', '어르신 관절염 예방을 위한 '이쿠아로빅'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소문을 타고 인근 지역민도 꾸준히 찾고 있어 올해 누적 방문객 8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애용하는 만큼 시설유지와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제7기 대표위원 23명 위촉

남원시는 민간과 공공영역이 함께 지역복지를 만들어가는 '제7기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위원 23명에 대한 위촉식을 14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남원지역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 민간서비스기관 및 시설이용기관의 대표들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남원시의 사회복지 시정계획을 수립, 심의뿐만 아니라 연계, 협력 기능까지 강화하여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등 남원시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공동위원장인 이환주 시장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요소인 민과 관의 협력체계를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다시 시작하려 한다"며, "남원시 복지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정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독감 무료예방접종 실시

26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대상

순창군이 만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의료원 및 관내 위탁 의료기관 12개소에서 접종 가능하다.

군은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 감염될 경우 세균성 폐렴, 심부전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고, 만성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 전 10월~12월 사이 꼭 예방접종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만 9세 이상 성인은 매년 1회 접종, 생후 6개월~ 만 8세 이하 소아는 과거 접종력에 따라 1~2회 접종을 권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65세이상 무료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대동의원, 류재규내과의원, 문희식내과의원, 순창요양병원, 희망병원, 이상희재활의학과의원, 참조은내과의원, 최선영내과의원, 한국의원, 동계누리의원, 쌍치의원, 구림우리의원이다.

정영관 순창군 보건의료원 원장은 "노인 독감 예방접종 뿐만 아니라 폐렴구균 무료(65세이상)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두 가지 예방접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